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코인베이스, 포춘 500대 기업의 블록체인 도입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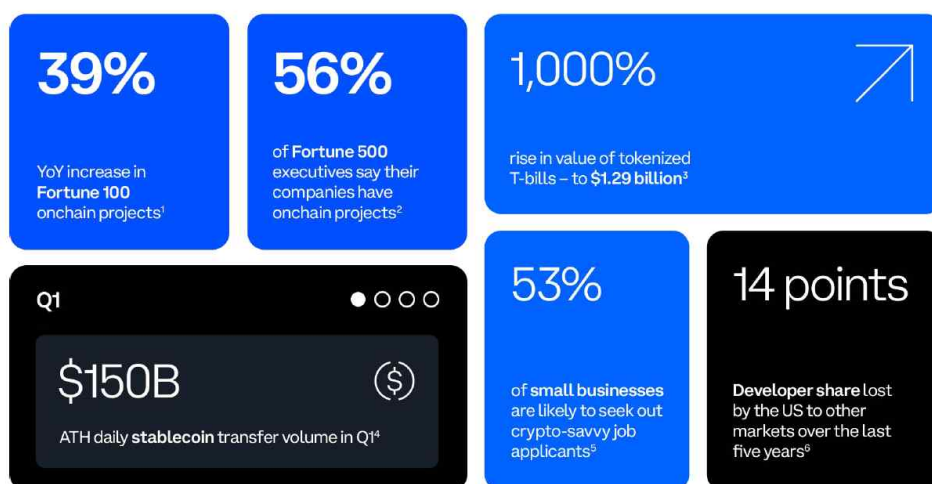
- 포춘 500대 기업, 56%가 온체인 프로젝트 진행...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상품 접근성 개선 효과로 분석
- 블록체인 중소기업 확산 중, 기술 저변 확대라는 긍정 측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 정체 우려가 공존

코인베이스가 미국 상장사 블록체인 도입 현황 분석 결과, 포춘 100대 기업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전년 대비 39% 증가했고, 포춘 500대 기업의 56%가 온체인(On-Chai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포춘 500대 기업, 56%가 온체인 프로젝트 진행 중...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상품 접근성 개선이 주요인

-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상장사 블록체인 도입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포춘 100대 기업의 블록체인·웹 3 프로젝트가 전년 대비 39% 증가했고, '24년 1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
- * Coinbase, The Fortune 500 Moving Onchain, 2024.06.12
- 또한 포춘 500대 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56%가 소비자 대면 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중심으로 온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해 미국 민간기업의 블록체인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보고서는 암호화폐의 미래 전망에 초점을 맞춰 '23년 6월 이후 4번째 발표된 분석 결과로 주요 산업별 블록체인·암호화폐 도입 현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술의 역할을 파악함
- 보고서는 미국 금융 등 각종 산업에서 주목받는 다수의 제품과 서비스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수용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블록체인 채택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

[미국 대기업을의 블록체인 도입 현황]



출처 : Coinbase, The Fortune 500 Moving Onchain, 2024.06.12

- 미국 상장 대기업을의 블록체인·암호화폐 활동이 증가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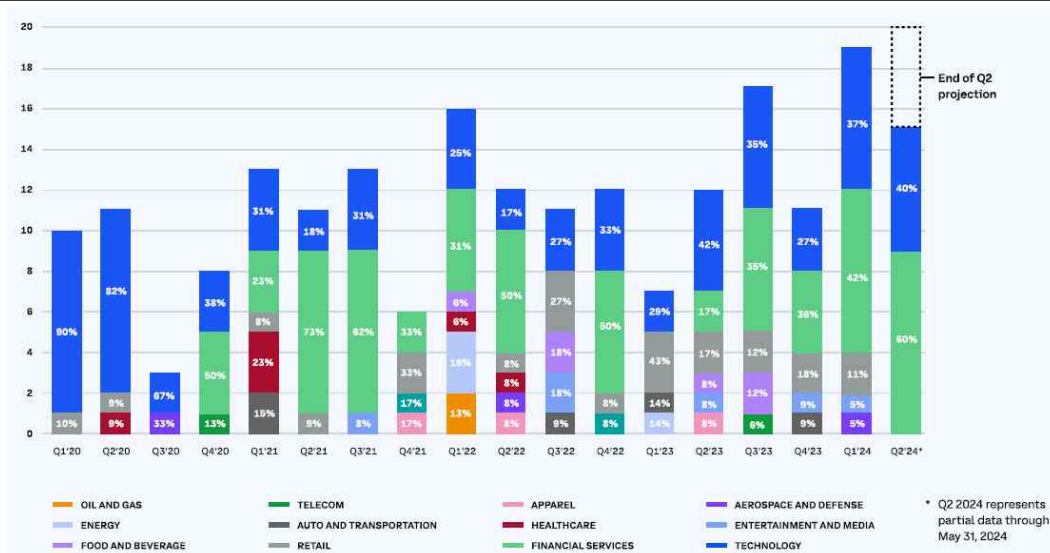
* '24년 6월 기준 비트코인 ETF가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630억 달러를 넘어섬

- 또한, 최근 고금리 경제환경으로 인해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온체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실물자산에 대한 토큰화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고 평가
* '23년에 토큰화된 미국 국채 상품의 가격은 1,000% 이상 상승해 1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함
- 이런 추세에 힘입어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30년에 EU GDP 규모인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보고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가상자산 활용을 고민한다고 분석하고, 대다수 중소기업(68%)은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수수료 부담과 처리 시간 단축과 같은 기존 금융의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고 설명
- 하지만 미국의 개발자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14% 하락해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블록체인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진단
- 보고서는 미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 주도권 강화, 기술 접근성 보장, 산업 혁신 촉진 등을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 온체인 프로젝트, 양적·질적 성장 모두 구현...금융과 기술 산업이 전체의 80%로 시장 확산을 주도

- 포춘 100대 기업은 '24년 1분기에 두드러진 온체인 활동에 나섰고, 전년 대비 활동 수 증가(39%)와 함께 추진 프로젝트가 진화 단계에 진입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4년 온체인 활동이 진화 단계에 진입한 비율이 59%로 나타나 '23년 52%, '22년 43%와 비교해 지속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 포춘 100대 기업의 온체인 활동은 금융과 기술 산업에서 활발해 두 산업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하며, 이는 '23년 60%에서 더욱 강화된 결과임
- 코인베이스는 '20년 1분기만 하더라도 기술 산업의 비중이 90%에 달했지만, 점차 금융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되어 '24년 2분기에도 금융 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포춘 100대 기업의 산업별 이니셔티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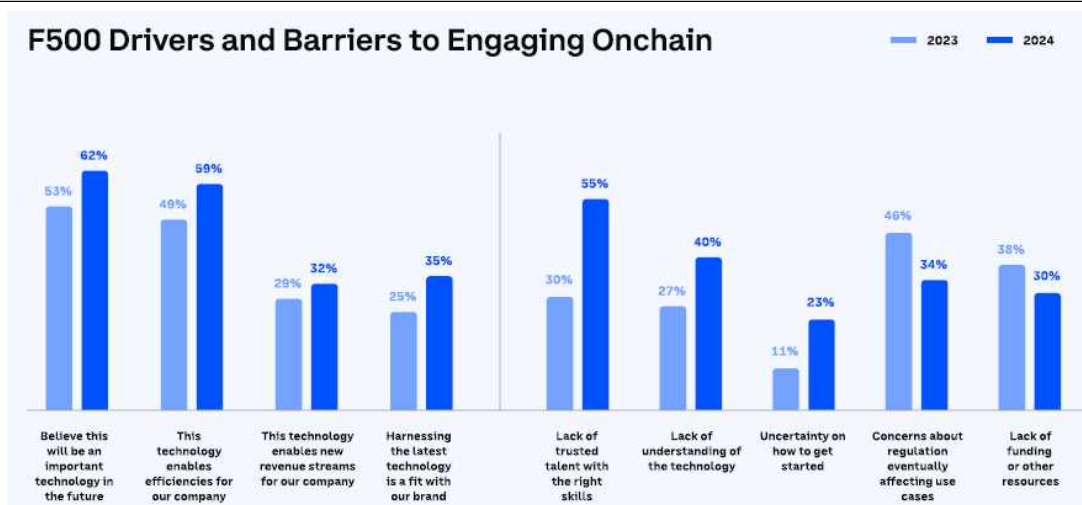


- **(금융 산업)**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 파코, 모건 스탠리 등이 중재 및 자산 관리 고객을 상대로 비트코인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을 주도했고, 시티와 골드만삭스도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해 흐름에 동참
- **(기술 산업)** 구글이 검색엔진에서 블록체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출시했고, 신규 블록체인에서 검증자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서비스를 출시해 변화를 주도
- MS는 자산 토큰화를 위한 신규 블록체인 네트워크 칸톤 네트워크* 테스트 참여를 발표했고, IBM은 캐스퍼 랩스(Casper Labs)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 감시 영역에 진출
- * Canton Network : 22개의 독립 분산 원장 애플리케이션(dApp)의 상호운용성을 보여주는 파일럿 네트워크로 '24년 3월 350개 이상의 시뮬레이션 거래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발표

▶ **블록체인 사례, 인프라와 소비자 대면 거래 부문에 집중...기술 중요성 인식해 관련 예산 꾸준히 증가**

- **(온체인 확산)** 산업별 블록체인 활용이 인프라 영역과 소비자 대면 거래 부문에서 증가했고, 이외에 ▲글로벌 및 오지 결제 수단(암호화폐) ▲플레이 투 언(Play-To-Earn) 메커니즘(게임) ▲환자 디지털 월렛 결제 및 암호화폐 기부(헬스케어) ▲블록체인 및 NFT 기반 로열티 프로그램(일반 소비) 등에서 활용
- **(기술 중요성 증대)** 포춘 500대 기업 움직임을 보면 매년 블록체인 기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온체인 프로젝트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포춘 500대 기업의 '24년 온체인 프로젝트 평균 예산은 950만 달러로 나타났고, 대다수 기업은 향후 2년 동안 암호화폐 및 온체인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
- 예산 증대 이유는 블록체인·온체인 프로젝트를 미래 중요 기술이자 자사 비즈니스 적합 기술로 파악하기 때문이며, 기업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수익원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반면, 온체인 프로젝트에 착수하지 않은 기업은 기술 신뢰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이외에 숙련 인력 부족, 성공에 대한 확신 부족,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온체인 도입 장벽에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이 주목할 변화로 평가

[포춘 500대 기업의 온체인 프로젝트 촉진 및 저해 요인]



- 포춘 500대 기업 경영진 70%는 스테이블코인의 즉각적인 처리, 낮은 수수료와 같은 기술 효용에 관심을 보이며, 경영진 86%는 실물자산의 토큰화(RWA)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 포춘 500대 기업 경영진 35%가 토큰화(스테이블코인 포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함

▶ **중소기업으로 확산 중, 기술 저변 확대라는 긍정 측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 정체 우려가 공존**

- 중소기업 53%가 암호화폐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블록체인 저변 확대라는 긍정 측면과 함께 숙련된 인재 부족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야기
-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대다수 중소기업은 암호화폐의 저렴하고 빠른 거래에 관심을 가지며, 현 금융 시스템의 비싼 거래 수수료와 거래 완료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처리 시간 문제를 최대 어려움으로 제시
- 중소기업 경영진 68%는 암호화폐가 수수료와 처리 시간 중 적어도 하나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76%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기회 모색에 활용을 고민

▶ **미국 블록체인 시장 역동적 상황 평가, 인력 해외 유출 막을 장기 대책 통해 리더십 확보 필요 지적**

-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암호화폐 개발자의 26%를 차지해 리더십이 하락(최근 5년간 14%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인재의 해외 유출과 육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
- 특히 포춘 500대 기업 임원들은 온체인 프로젝트 추진에서 규제에 대한 우려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재 확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고, 인력 풀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은 재무, 법률, IT 인력 채용에서도 암호화폐 지식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도입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미국에 머물고 지속적인 혁신 활동 유지를 위한 핵심 키라고 강조
-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가 필요한 소외 계층에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금융 포용성이 산업 저변 확대와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서 중요하다고 지적
- 포춘 500대 기업 48%는 암호화폐가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가치 창출 능력을 높이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했고, 기술 간 융합과 산업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

- 코인베이스가 미국 블록체인 도입 현황 분석에서 미국 대기업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전년 대비 39% 이상 증가하고 '24년 1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평가
- 이러한 추세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어 블록체인 산업 저변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져 중소기업 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됨

[출처]

- Coinbase, 'The State of Crypto: The Fortune 500 Moving On-chain' 2024.06.1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Appinventiv, 블록체인 기술 기반 IP 보호 방안 보고서 발표

- 블록체인의 보안성, 투명성, 불변성은 디지털 자산 보호에 특화...IP 관리 부문에서 광범위한 적용 가능
- 블록체인 IP 플랫폼, 창작물·개인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유출 차단...스마트 계약으로 손쉬운 사용 허가

인도 블록체인 전문기업 앱인벤티브(Appinventiv)가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블록체인과 특허·저작권이 결합한 블록체인 IP 플랫폼이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관리 시스템으로 효용이 커질 것으로 전망

▶ 블록체인의 보안성, 투명성, 불변성은 디지털 자산 보호에 특화...IP 관리 부문에서 광범위한 적용 가능

- AI를 비롯한 혁신적 기술의 진화로 데이터, 미디어, 코드 등의 대량 유입과 생성이 가능해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 이런 수요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효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특허, 상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 관리에서 블록체인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다는 평가가 확산
- 최근 EU 지식재산사무소(EUIPO), 태국 상무부 등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타임스탬프가 찍힌 정보 및 데이터를 정보 체인에서 운영해 완벽한 보안과 추적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IP 시스템 도입을 추진

▶ (블록체인과 저작권) 인터넷 시대 저작권 보호 취약...블록체인 통해 원본, IP 소유권 인증이 효과적

- (④소유권 증명) 창작자가 자산의 창작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IP를 등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저작권의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확보*해야 함
 - * 인터넷 시대를 맞아 누구나 작성된 콘텐츠를 내려받아 자신의 창작이라 주장할 수 있어 저작권 행사가 매우 어려움
- 저작권 문제 해결에서 블록체인은 ▲원본 제시(불멸의 기록을 제공하는 특성을 통해 위조품과 구별) ▲IP 소유권 인증서 생성 ▲타임스탬프를 통해 이의 제기와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소유권 증명이 가능

[블록체인의 저작권 보장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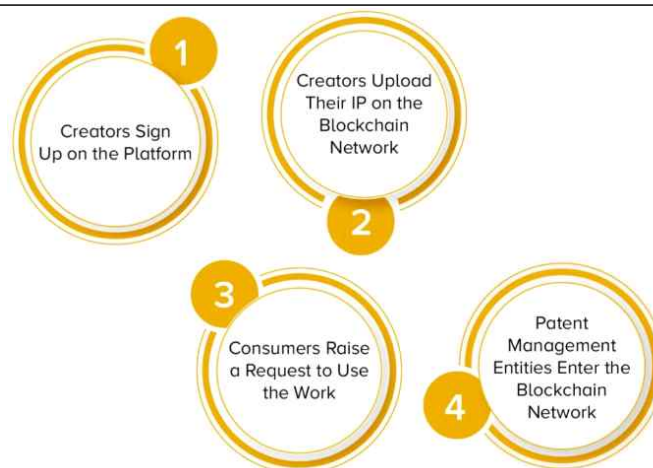


- **(② IP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을 이용해 생성한 지식 재산을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나열할 수 있고, 이때 마켓플레이스는 발명 노하우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자 검색에 활용할 수 있음
- 블록체인 기반 IP 마켓플레이스는 ▲IP 등록(자산 등록, 자산 유효 기간 기록 생성) ▲IP 거래(자산 인증, 검증 및 이전) ▲IP 결제(자산 양도 및 교환에 대한 결제 실행) 등의 기능을 제공
- **(③ 소유권 기록)** 일반적으로 특허 데이터는 각 국가 또는 글로벌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유권 등 정보 확인 절차가 복잡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해 소유권 기록을 생성하면 소유권 상태와 권리 사용 이력 등을 손쉽게 추적·확인할 수 있음
- 가령, 상표가 사용될 때마다 IP 사무소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구현하면, 상표 수명 기간에 사용된 이력을 타임스탬프가 표시된 확실한 증거로 생성할 수 있음
- **(④ IP 자산 버전 관리)** 특허나 저작권이 유효 기간 종료 등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버전 생성과 자산의 엔드-투-엔드 수명 주기 관리가 필요
- 현재 대다수 기업은 자사 특허를 조기에 공개해 유사 특허의 등장을 막는 방어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블록체인은 모든 특허에 고유한 지문을 부여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업로드 버전을 관리하고, 정보 추적이 가능한 색인을 생성해 훨씬 편리한 관리가 가능
- **(⑤ 미등록 지식재산권)** 블록체인과 지식 재산의 결합은 권리 관리 정보, 생성 시기, 관할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미등록 지적 재산의 등록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

▶ **(블록체인 IP 플랫폼) 창작물·개인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 유출 우려 차단...스마트 계약으로 사용 허가**

- 블록체인과 지식 재산이 결합한 플랫폼은 ▲저작권 창작자(연구원, 작가, 예술가, 음악가, 사진작가 등 원본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사용자) ▲저작권 소비자(콘텐츠를 소비하고 창작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사용자) ▲저작권 관리 주체(지적 재산 보호를 관리하는 사용자)가 모두 소비자로 참여

[블록체인의 저작권 보장 작동 방식]



출처 : appinventiv, 'Is Blockchai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e Answer to Creators' Copyright Problems?', 2024.06.12

- **(1단계 : 플랫폼 참여)** 창작자가 블록체인 IP 플랫폼에 가입해 자신 창작물을 등록하고 추가 정보 등을 입력해 프로필을 생성

- 창작물 및 개인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개인 데이터 보안을 보장
- **(2단계 : IP 업로드)** 플랫폼 가입이 완료되면, 지적 재산과 특허 출원이 추가되며, 창작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IP 관련 모든 정보를 출원 및 업로드를 진행
- 블록체인은 IP가 네트워크에 업로드된 순간부터 데이터의 복제 및 조작을 방지하는 추적성(traceability)과 감사성(auditability)을 보장
- **(3단계 : 저작물 사용요청)** 저작물 사용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블록체인 IP 플랫폼에 사용자 등록, 프로필 작성, 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고, 창작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요청해 저작물 사용이 가능
- 저작물 사용요청 승인 전에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저작물 액세스 대가로 수수료나 토큰 형태로 지급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며, 창작자가 승인을 허락하면 스마트 계약과 비공개 계약(NDA)*이 생성·서명됨
* Non-Disclosure Agreement(NDA) :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자세히 명시해 민감한 정보와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계약으로 통상 당사자 신원, 기밀 간주 항목, 기밀 취급 예외, 기밀 유지 약속 기간 등을 규정함
- **(4단계 : 저작권 분쟁)** 특허 및 저작권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블록체인 IP 플랫폼을 이용해 타임스탬프가 찍힌 감사 가능한 기록 확인, 콘텐츠 출처, 독창성 등을 증명할 수 있음
- 저작권 거래 이후 분쟁은 ▲기밀 정보 공유 ▲저작권자 증명 관련 이의 ▲지식재산권 이전 ▲유사 콘텐츠 생성 등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특허 관리 주체의 개입이 필요함

▶ 기존 IP 시스템과 블록체인 통합 전망...IoT, AI 등 신기술과 결합해 간소화되고 신속한 IP 생태계 구현

-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애플벤처는 블록체인의 보안성, 투명성, 불변성은 디지털 자산 보호에 특화된 기술이라 강조하고, 블록체인과 특허·저작권이 결합한 블록체인 IP 플랫폼은 강력한 지식 재산의 증거 시스템으로 효용이 커질 것으로 전망
- 기존 지식 재산 시스템과 블록체인이 통합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일부 국가에서 변화 움직임이 나타남
- 인도 특허청(IPO)은 특허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과 IoT, AI 등 혁신 기술 간 통합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간소화되고, 신속한 절차가 구현된 IP 보호 생태계 구현에 나섬
- 미국의 경우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국토안보부가 공동으로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 도용 방지를 위한 수입품 검사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추진에 나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개념 증명 프로젝트를 추진
- 태국 상무부는 IP 등록 업무에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진행했고, 태국 무역 정책 및 전략 사무소(TPSO)가 영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추가 개발에 나섬

- AI 등장으로 저작권 이슈가 부각하면서 IP 보호에서 블록체인의 보안성, 투명성, 불변성 특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거의 모든 형태의 IP 관리에서 블록체인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평가
- 블록체인 IP 플랫폼은 창작물과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해 유출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저작물 사용을 손쉽게 허가하는 등 IP 프로세스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구현함

[출처]

- Appinventiv, 'Is Blockchai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e Answer to Creators' Copyright Problems?', 2024.6.1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분산 ID, 웹3 시장의 차세대 킬러앱으로 주목

- 블록체인, 비(非)투기적 사례로 저변 확대 필요...분산 ID, 10억 명 이상 사용자 확보 가능 분야로 주목
- 분산 ID, 강력한 사이버 보안과 각종 금융 사기 차단 장점 보유...쿼리 없는 인증 사례 등이 출현

웹3에서 주목받는 분산 ID가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 대신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속성이 주목받으면서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자 차세대 킬러앱으로 부상한다는 평가

▶ **블록체인, 비(非)투기적 사례로 저변 확대 필요...분산 ID, 10억 명 이상 사용자 확보할 대안으로 주목**

- 분산 ID*가 차세대 블록체인 생태계를 좌우할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가 확산
* Decentralized Identity : 블록체인 기반으로 누구나 투명하게 정보를 검증하고, 본인의 신분증, 자격증 등 신원정보를 개개인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신원 증명 기술
-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견인할 강력한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분산 ID가 강력한 사이버 보안 기능과 각종 금융 사기 차단 등의 뚜렷한 장점을 가져 수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평가
- 최근 블록체인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 저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非) 투기적 사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게 확산하고 있고, 분산 ID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주목
- 분산 ID와 웹3가 결합하면 사람, 제품, 데이터, 문서가 통합된 디지털 신원 생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 대신 인증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해짐
- 또한 인증 정보가 사용자의 암호화페 지갑에 로컬 형태로 저장되므로, 시드 문구* 변경만으로 정보 사용 철회가 가능해 데이터 주권 보장도 쉽게 구현할 수 있음
* Seed Phrase : 특정 암호화페 지갑과 관련된 모든 개인 키를 나타내는 무작위의 단어 모음
- 하지만 분산 ID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패러다임은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되며, 최근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분산 ID에 대한 선도적 접근이 시도됨
- 이스탄불의 분산 ID 프로젝트는 그중 하나로, 해당 프로젝트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선택적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인증에서 데이터베이스 쿼리 없이 작동하도록 구현됨
- 이스탄불 사례는 실제 사용성을 입증해 복잡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분산 ID가 개인정보 사용 대신 인증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제공하는 모델 등으로 블록체인의 확산을 이끌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목받음
- 아직 초기 단계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없이 인증을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등 선도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데이터 주권 구현도 가능해 관심이 증폭됨

[출처]

- Cointelegraph, 'Decentralized ID is the next 'killer' Web3 use case: Cardano sustainability lead', 2024.06.1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유럽]

MiCA 주요 조항의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긴장 고조

- EU는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한 주요 핵심 조항의 시행을 앞두고 있음
- MiCA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화된 규제 요건을 적용하며 규정 미준수 기업에는 엄격한 제재를 부과

MiCA는 EU 전반의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로 단계적으로 시행

▶ **EU가 6월 30일 포괄적 암호자산시장법(MiCA) 주요 조항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산업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불확실성 지속**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감독하는 MiCA는 '23년 4월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EU 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화된 규제 요건을 적용
- MiCA는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되는데, 그 첫 번째로 6월 30일부터 주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암호화폐 운영 법인 등록 및 KYC/AML* 요건 준수가 시행됨
 - * ▲(KYC) 고객신원확인 ▲(AML) 자금세탁방지
- 이에 따라 MiCA 도입 이전부터 운영 중인 사업체에 적용되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과징금 부과와 규제 요건 충족 시까지의 EU 내 영업 금지가 내려질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일부 조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24년 12월까지 EU 내 스테이블코인 등록, 발행 운영 및 감독 관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 모든 조항에 완전한 준수가 요구
-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6월 30일 이후부터 특정 MiCA 요건에 맞춰 운영을 시작해야 하나 자본 및 준비금 의무와 같은 가장 엄격한 요건은 추후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기업이 변경된 기준 및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보장
- EU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운영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또한 MiCA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운영 및 규정 준수에 있어 상당한 지각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
- MiCA는 유럽 암호화폐 시장에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핵심 기한인 6월 30일이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규칙에 내재된 모호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며 업계 전반의 우려가 지속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경우 MiCA에 따라 6월 30일부터 새로운 요건 및 기준에 맞춰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일부 요건은 추후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유예기간을 보장
- MiCA 도입에 따른 요건은 EU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EU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운영 사업체 모두에 적용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업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출처]

- The Block, 'Uncertainty looms for crypto industry and stablecoins ahead of key EU MiCA deadline', 2024.06.1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영국]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책임자, 암호화폐 거래 중독에 대한 억제 조치 촉구

- 영국 내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어 중독 치료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이 도박 중독 현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억제 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젊은이들 사이에서 도박 중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이 이러한 중독 현상에 기여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아만다 프리차드(Amanda Pritchard) 최고 책임자가 암호화폐 거래에 중독된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

- 프리차드 책임자는 6월 12일 맨체스터에서 열린 NHS 관리자 대상 컨퍼런스인 NHS ConfedExpo를 통해 올해 초 NHS가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15번째 도박 중독 전문 클리닉을 개소했다고 설명
-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이 계속 심화될 경우, 중독 치료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어 NHS는 한정된 자원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야 함에 따라 원천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
- 작년 6월, 영국 국왕 찰스 3세(King Charles)는 다른 금융 서비스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암호화폐를 금융 서비스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규제하길 원하는 영국 재무부는 작년 7월 암호화폐 소매 거래를 도박과 동일하게 규제하자는 의회의 기존 제안을 거부
- 많은 암호화폐 사용자가 큰 수익을 기대하며 고위험 토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밈코인은 자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마케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증
-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에게 토큰의 가격 변동 시 높은 레버리지를 베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베팅이 잘못될 경우 수백만 달러의 청산금이 발생
- 한편, 온라인, 탈중앙화 및 상시 운영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중 암호화폐 도박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탈중앙화 예측 시장 플랫폼 Polymarket의 경우, 스포츠 및 선거 결과 등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베팅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내 애플 기기를 금지할지 여부 등 틈새 베팅을 제공
- 6월 11일 호주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서의 암호화폐 및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며, 온라인 플랫폼에 오프라인 도박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

- 영국은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중독 및 투기 위험 증가에 따라 이를 다른 금융 서비스와 동일한 규칙에 따라 규제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
- 한편, 호주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도박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규제

[출처]

- Cointelegraph, 'Britain's public healthcare chief flags rise in crypto trading addiction', 2024.06.13.